



[산업]
매출 140조 중 54% 수출
SK 최태원 회장
혁신의지 통했다
04



코스피 2525.39 (0.00)	→	코스닥 899.47 (0.00)
금리 (국고채 3년) 2.25 (0.00)	→	환율 (원·달러) 1079.70 (+7.80) (2일)

‘코스피 3000’ 방아쇠는 지배구조 개선·배당 확대

삼성, 주주 친화정책 포문
효성·LS도 지배구조 개선

삼성전자가 지난달 31일 50대 1의 액면분할을 결정하면서 주가는 장중 270만원대까지 치솟았다. 거래대금도 3조3249억원을 기록했다. 당시 상장 종목 중 하루 거래대금으로는 역대 최대다. 코스피 시가총액의 23%를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앞장서 업그레이드된 주주 친화정책의 포문을 열었다는 평가다.

LS, 효성, CJ 등은 지배구조를 바꾸는 작업에 들어갔다. 투자자들의 반응도 뜨겁다.

코스피가 올해 들어 4.01% 오르는데 그쳤지만 여전히 추가 상승을 예상하는 의견이 우세하다. 2500선 돌파를 이끈 원동력은 실적이 바탕이었는데 이견은 없다. 하지만 ‘코스피 3000 시대’를 여는 트리거(방아쇠)로는 한계가 있다.

주식시장에선 기업 지배구조 개선과 배당 등 주주환원 확대가 증시 상승의 단초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IB)이 예상한 올해 코스피 전망치는 2780~3000포인트(중간값 2900포인트)다. 지난해보다 13~22%(+18%) 상승을 예상한 것.

노무라는 “견조한 이익 성장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으로 주가가 재평가 받을 것”이라며 코스피가 3000포인트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HSBC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코스피 상승여력은 충분하나 반도체 외 업종에서 실적 개선 전망은 불확실하다. 예상 코스피는 2780이다”고 분석했다.

이들은 실적과 위험자산으로 흐르고 있는 글로벌 유동성, 주주 가치 제고 정책 등을 상승 트리거로 꼽는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평창 G-4
매서운 추위

평창동계올림픽이 열리는 강원 평창과 강릉 일대 기온이 크게 떨어진 4일 오전 강릉선수촌에서 각국 선수들이 털모자와 목도리로 얼굴을 감싼 채 국기광장을 오가고 있다. 윗줄 왼쪽부터 헝가리, 독일, 미국, 북한, 아랫줄 왼쪽부터 카자흐스탄, 대한민국, 러시아, 폴란드。

/연합뉴스

속도·용량 보다

스마트폰의 새 기준은 ‘인공지능’

삼성·LG ‘MWC 2018’ 참여
AI 기능 확충된 신제품 공개



삼성전자 갤럭시S8에서 인공지능 비서 앱 빅스비 리마인더가 작동하는 모습。

/삼성전자

보다 빠른 성능과 넉넉한 용량으로 경쟁하던 스마트폰이 이제 ‘인공지능(AI)’으로 전장(戰場)을 옮기고 있다.

오는 25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18’을 하루 앞두고 삼성전자가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S9’을 공개한다. 갤럭시S9에는 인공지능 반도체 설계기술이 적용된 신형 애플리케이션프로세서(AP) ‘엑시노스9810’이 탑재된다.

엑시노스9810은 8개 코어를 활용해 딥러닝 성능을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이미지를 빠르고 정확하게 인식·분류할 수 있다. 삼성전자의 인공지능 인터페이스인 ‘빅스비’의 성능 향상이 기대되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갤럭시S9에 삼성

정된다. 구글과 협력해 V30에서 처음으로 구글 어시스턴트 한국어 버전을 탑재한 만큼, 구글 어시스턴트의 음성인식을 활용, 다양한 기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인공지능 성능을 강화하고 나선 것은 스마트폰 시장이 포화돼 차별화가 시급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미국 시장조사업체 IDC에 따르면 2017년 세계 스마트폰 출하 대수는 전년 대비 0.1% 줄어든 14억 7240만 대를 기록했다.

애플은 아이폰8과 아이폰X(텐)에 인공지능 프로세서 ‘A11 바이오닉’을 적용했다. A11 바이오닉에는 뉴럴 엔진이 적용된 인공지능 칩셋이 장착됐다. 듀얼 코어로 설계된 뉴럴 엔진은 초당 최대 6000억번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 안면 인식 등 이미지 분석과 음성 인식 자연어 처리에 특화됐다. 애플의페이스 ID도 A11 바이오닉 프로세서 덕분에 구현될 수 있었다.

/오세성 기자 sesung@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도 팽팽히 맞섰다. 최흥식 금감원장은 지난 1일 “여러 가지 채용비리 상황을 확인해 검찰에 결과를 보낸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같은 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은행들은 반박 해명을 내놨다. 같은 당국의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은행들은 반박 해명을 내놨다.

국민은행은 “채용과 관련해 논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 면접 점수 조작 사실이

없다”고 공식 해명했다.

금감원은 “채용과 관련해 논

란이 되는 직원들은 정상적인 기

준과 채용 절차에 의해 채용됐

다”고 해명 자료를 냈다. 하나은

행도 “채용비리 사실, 특혜채용

청탁자, 특정 대학 출신을 합격시

키기 위한